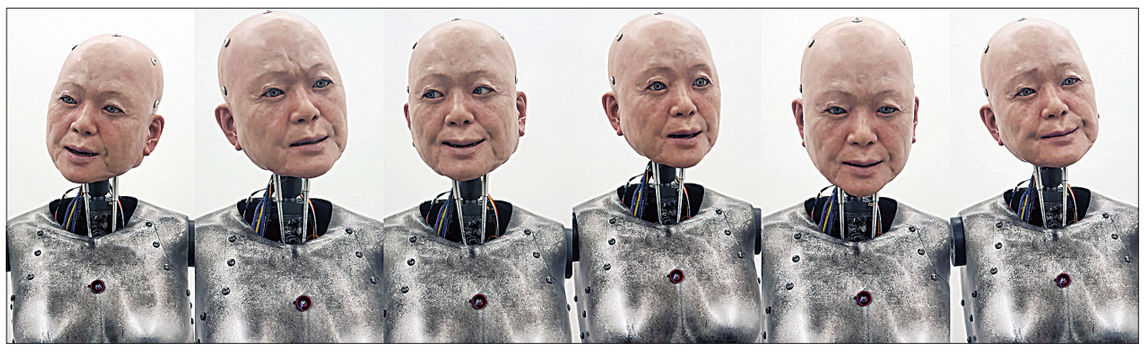
어르신 삶의 서사 미디어아트로…

탑골미술관 첫 미디어아트 기획전
'남겨둘 시간이 없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노인의 날' 맞아 노인 · 시간 조명
"우리 삶에서 남겨둘 시간 없다"
인공지능로봇 · 인터랙션 설치 등
어르신 이야기 담은 미디어아트
노진아 · 다프네 라이트 등 총 5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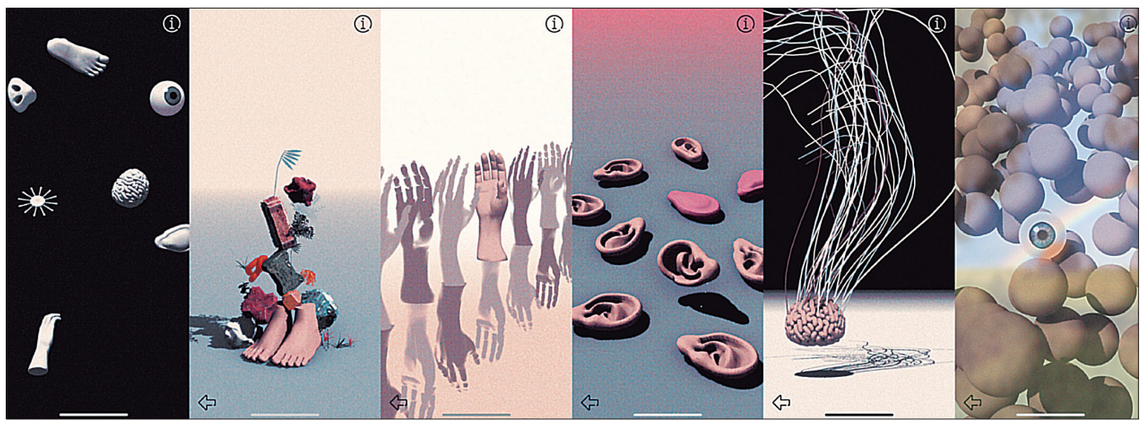


사진 위-노진아, '나의 기계 엄마' 2019, 60×50×180cm / 사진 아래-우박 스튜디오, '몸의 우주' 2021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탑골미술관 첫 미디어아트 기획전 '남겨둘 시간이 없답니다(No Time to Spare)'를 개최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문화예술 향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감각할 수 있는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합적인 전시 향유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적 기능성을 찾고자 마련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마련한 이번 전시는 삶의 여정으로서 개인이 갖는 '시간의 이야기'에 주목하며, 노인 혹은 주변부에 머무른 이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감각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미디어를 매개로, 미디어가 갖는 매체성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개인의 서사와 몸이 품고 있는 시간을 재조명함으로써 전시의 시간이 경유하는 길로 관객을 유도한다.

전시의 제목인 '남겨둘 시간이 없답니다'는 어슐러 르 귄(Ursula Le Guin)의 생애 마지막 선집 〈No Time to Spare〉를 참고했다. 우리의 삶에서 할 일이 없는 시간을 찾아낼 수 없고, 그 때문에 남겨둘 시간도 없다는 책의 표현에서 늙고 스러지는 것 대신 끈기 있고 명료한 삶의 시간을 보내는 노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자신만의 온전한 시간으로 시간의 겹을 쌓아 몸의 지식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 남겨둘 시간은 없다. 전시는 이러한 '이야기의 시간'을 경유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축을 만들고 있다.

전시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사전 워크숍을 통해 미디어아트 작업으로 재탄생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인공지능 로봇, AR, 인터랙션 설치 등 노진아, 다프네 라이트(Daphne Wright), 무진형제, 아르동(남기륭), 우박 스튜디오, 5팀의 미디어 아티스트 작품을 과거 흔적의 시간과 현재의 이야기로 나누어 소개한다.

△노진아와 다프네 라이트(Daphne Wright)의 작품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관객과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현재의 이야기를 담는다. 노진아의 시간이 쌓여 학습된 인공지능 로봇엄마는 상황에 맞는 표정과 말을 인간과 유사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작가와 엄마의 시간은 켜켜이 쌓여 현실과 연결 관계를 만든다.

이와 달리, 다프네 라이트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낯선 외모와 순서를 뒤바꾼 발화 방식을 택하여 몰입을 위한 관계를 끊어낸다. 그럼에도 두 작품은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과 함께 소통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감정적 공감을 현재로 이끌어간다.

△무진형제, 아르동(남기륭), 우박 스튜디오는 시간의 과거, 흔적을 발견하는 데 주목한다. 먼저 아르동(남기륭)은 사물간의 관계를 묘사하며 과거 시간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애장품이 갖는 개인의 서사를 바탕으로 사물의 시간성을 눈과 귀, 몸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무진형제는 오랜 시간 개인의 몸과 언어로 기억되는 장소를 자연스럽게 담아 삶의 흔적을 살피고, 그 순간을 함께하길 제안하며, 시간의 감각과 물성을 연결하여 흔적을 발견하고 펴내길 반복한다.

끝으로 우박 스튜디오는 몸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 자체에 주목하며 과거 시간의 쌓임을 신체 데이터로 치환하여 보여준다. 주름, 목소리 등 수집된 신체 데이터는 자신을 증명하는 고유한 인증서로 발급된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선보이며, 작품의 시간 또한 그 자체로 의미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전시는 서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주변 참여적 시선을 함께 갖고, 전시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10월 14일 오후 2시에는 아르동 작가와 함께 애장품에 얽힌 스토리를 공유하고 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보는 '애장품의 대화'가 마련되어 있다.

끝으로 10월 15일 오후 1시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전시의 디자인을 맡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과 디자인 자문을 맡은 일상의 실천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실천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생각을 나눈다.

탑골미술관 관장 희유 스님은 "이번 탑골미술관의 첫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그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미디어아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품을 느끼고 감각하며 다양한 예술 경험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탑골미술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02)6220-8502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 특별 공개

9월27일부터 한 달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불교중앙博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 두 번째 괘불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은 9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의 두 번째 괘불로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보물)'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특별 공개한다. 불교중앙박물관과 고운사(주지 등운)는 지난 8월 26일부터 고운사와 소속 말사의 성보를 선보이는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는 고운사에서 온전히 보존 전승해온 국가지정문화재급 성보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봉정사와 부석사를 비롯한 영남 북부의 불교문화를 살펴보는 자리이다. 특히 고려 시대의 귀족적인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과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이 처음으로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고운사 말사의 괘불 3점을 교체 전시하고 있는데,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보물)'이 그 두 번째이다.

괘불은 사찰의 야외에서 설행되는 의식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대형 화폭에 제작되었으며, 당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성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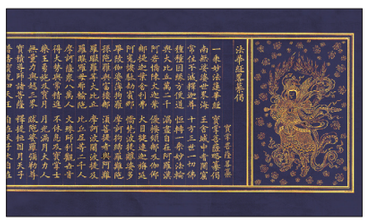
'봉정사 영산회 괘불(1710)'은 높이 742m, 너비 585m 크기의 대형 불화이다. 중앙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여덟 보살과 십대제자가 함께 그려져 있다. 전각 내부에 봉안되는 후불도와 비슷한 구성이나 본존이 서있는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의식이 설행되는 도량에 강림하시는 부처님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존상의 상호는 분홍색으로 바림하여 생동감과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김경호 사경전 '묘법연화경 권제3'

10월 5일~10일 아리수 갤러리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사경장 김경호가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아리수 갤러리에서 사경전 '묘법연화경 권제3'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에 개최했던 '묘법연화경 권제1'에 이은 것으로, 김경호 사경장이 2019년 1년 동안 조성한 역작들을 선보인다. 김경호 사경장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부처님을 조성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한다. '묘법연화경' 권제3 한 작품만 볼 때도 약 1만의 부처님을 모신 셈이다. 0.1mm의 붓 끝에 초집중한 가운데 '묘법연화경' 권제3의 경문 서사에 소요된 시간만 해도 온전히 1000시간 이상이 걸렸다.



김경호 作, 감지금니 법화경약찬게 일부

권제3을 먼저 선보이는 것은 재료(자주색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묘법연화경〉 권제2는 자주색지에 금니로 사경을 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시중의 자주색지의 질이 좋지 않아서 좋은 자주색지가 확보될 때까지 권제2의 조성을 미루고 권제3을 먼저 조성하게 됐다고 한다.

박재완 기자

다연기획과 함께 2023 불교카렌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독판 달력 제작 상담 및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문의 바랍니다.



봉축 행사 용품 및 현수막 제작
각종 불교 용품 판매합니다.



달력 종류 : 벽걸이 특호 / 벽걸이 대 / 벽걸이 소 / 탁상 / 미니 차량 / 메모 수첩

도서출판 다연기획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4길 14(조계사 옆) Tel. 02)723-4301 Fax. 02)723-4303 E-mail. lotus4301@daum.net 농협 053-12-162413 (남정숙)